

친노 한사람도 없을 거라더니... 친노 포진한 '김종인 선대위'

최재성 등 포함 15명중 10명... '도로 문제인 당' 지적 김종인 "당 갈등 봉합 차원 인선"... 호남민심 향해 주목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이 지난 22일 당을 선대위 체제로 전환시켰으나 선대위 인선을 둘러싸고 정치권에서는 '도로 문제인 당'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등 출발부터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광주·전남지역 정치권에서는 더민주의 선대위 인선과 관련해, "새로운 출발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부정적 반응이 주를 이루고 있어 총선을 앞둔 호남 민심의 향배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더민주가 이날 당무위원회를 열어 김종인 선대위원장을 포함한 16명의 선대위 구성 안건을 의결하고 선대위를 공식 출범시켰다. 그러나 선대위 구성을 놓고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전체 선대위원 15명 가운데 10명 이상이 문제인 대표 측 인사들로 평가되면서 '도로 문제인 체제'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선대위원 가운데 최재성·진선미·우윤근·박법계·유은혜 의원은 문제인 대표 측근으로 분류되고 이용섭 전 의원과 손혜원 후보위원장도 문 대표로 사람으로 꼽힌다.

특히, 최재성 총무본부장이 선대위원에 들어간 것은 주류 진영에서 향후 논의될 공천 룰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되면서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여기에 이수혁 전 독일 대사,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 이철희 두문정치연구소장, 김병관 웹젠 이사회 의장, 양항자 전 삼성 전자 상무 등도 문 대표가 직접 영입한 인사들이다.

중도 및 비노 성향으로는 박영선 의원, 김경춘 부산시장위원, 정장선 전 의원 등이 꼽히고 있는 실정이다.

선대위가 친문 체제로 구성되면서 당에 복귀한 박영선 의원이 정치적 딜레마에 빠진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은 선대위 구성에 대해 "당의 여러 갈등 구조에 섞였던 사람들을 봉합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인선했다"고 말했다.

수도권, 영호남, 충청권 인사를 두루 발탁하는 등 지역별·성별 안배에도 신경을 쓴 '화합형'이라는 뜻이다.

주류 일색이라는 지적에 대해 김 위원장은 "(나는) 누가 친노이고 아닌지 개념이 없는 사람"이라며 "어떻게 짜야 화합하는

■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구성

선거대책위원	구분
김종인	위원장
박영선 의원	위원·통합행동·중도
우윤근 의원	위원·주류·친문
최재성 의원	위원·주류·친문
박법계 의원	위원·주류
진선미 의원	위원·주류·친노
김영춘 전 의원	위원·통합행동·중도
이용섭 전 의원	위원·친노
정장선 전 의원	위원·통합행동·중도
손혜원	위원·당 홍보위원장·친문
표창원	위원·문제인 영입 1호
김병관	위원·문제인 영입 2호
이수혁	위원·문제인 영입 3호 (김 위원장과의 친분)
양항자	위원·문제인 영입 7호
이철희	위원·문제인 영입 16호 (뉴파티위원장)
유은혜 의원	위원·민평권·본인 고사

데 도움이 되는지가 커다란 기준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 안해도 된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이 지난 14일 선대위원장으로 영입되면서 "친노 패권주의가 당에 얼마만큼 깊이 뿌리박고 있는지를 보겠고, 이것을 수습할 능력이 없다고 생각했으면 오지도 않았다"며 "(앞으로 출범할) 선대위에 친노는 한 사람도 없다"고 강조했다. "말 바꾸기"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당내 비주류 진영에서는 "전형적 말 바꾸기며 선대위원장 수락 여부가 계파주의 해체보다는 자신의 정치적 영달에 있는 것이 아니냐"고 불만을 터뜨렸다.

국민의당(가칭) 창당을 주도하는 무소속 안철수 의원은 22일 더민주의 선대위 인선과 관련해, "정치가 너무 소만 하는 것 같다"며 "결국 국민이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진영 국민의당 창당준비위원회 대변인은 23일 논평을 통해 "문 대표가 자신의 아바타들을 선대위에 포진시켰다"며 "문재인과 더불어 선대위"를 꾸려놓고 기득권을 해체하겠다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특히, 선대위 인선 파문은 더민주와 국민의당을 놓고 고심하고 있는 호남 민심의 흐름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이번 선대위 인선 파문이 더민주에 상당한 약제가 되면서 호남 민심의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더민주에 잔류하고 있는 중도 성향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들은 "도대체 뭘 하자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지역 민심이 선대위 구성을 놓고 더민주가 달라졌다고 할 수 있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4/연동기자 tuim@



24일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 다목적홀에서 열린 '광주·전남 시·도민과 함께 더불어콘서트 사랑의 힘' 행사에 참여한 지지자들이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 등 외부영입 인사들이 소개되자 환호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

총선체제 전환 더민주 광주서 이틀째 민심 공략

영입인사 출동 더불어콘서트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2일 김종인 선거대책위원장이 이끄는 선대위를 출범시키는 등 본격적인 총선 체제로 전환한 가운데 영입 인사들이 23일과 24일 아권심장부 광주에서 이틀째 민심공략 행보에 나섰다. 이들은 '호남의 아들·말'을 자처하며 호남 정서에 구애했다.

더민주가 24일 오후 2시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광주·전남도민과 함께 더불어콘서트 사랑의 힘' 행사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외부 영입인재 17명 가운데 12명이 직접했다. 표창원 전 경찰

대 교수와 양항자 전 삼성전자 상무, 김병관 웹젠 의장, 오기형 변호사, 김민영 전 참여연대 사무처장이 연사로 나섰다. 표 전 교수를 제외한 4명은 모두 광주와 전남·북 출신이다. 청년디자이너 김빈씨, 김정우 세종대 교수, 하정열 한국안보통일연구원장, 박희승 전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장, 유영민 전 포스코 경영연구소 사장, 오성규 전 서울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도 참석했다.

이들은 지역 연고를 강조하며 더민주의 지지를 호소했다. 영입인사들은 토크 콘서트에 앞서 이날 오전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했다. 최재성 총무본부장, 강기정·신정훈 등 현역 의원들도 동행했다. 앞서 전날인 23일에는 양항자 전 상무와 오기형 변호사가 고향인 화순군을 방문, 현지 정관계 인사와 면담, 유권자와 만남 등 일정을 소화했다. 면담을 마친 양 전 상무는 모교인 광주 보통일연구원장, 박희승 전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장, 유영민 전 포스코 경영연구소 사장, 오성규 전 서울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도 참석했다. 이들은 지역 연고를 강조하며 더민주의 지지를 호소했다. 영입인사들은 토크 콘서트에 앞서 이날 오전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했다. 최재성 총무본부장, 강

김종인 "국보위 전력 왜 문제되는지 몰라... 후회한 적 없어"

"광주정신 모독...역사관 개탄" 지역정치권 등 비판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선거대책위원장이 지난 22일 과거 국보위(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참여 전력과 관련해, "지금까지 국보위 뿐 아니라 어떤 결정을 해 참여한 일에 대해 스스로 후회한 적 없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당 대표실에서 한 기자간담회에서 "국보위 관련해서 왜 왜 그것이(국보위 참여) 문제가 되는지 내 스스로는 잘 모르겠는데..."며 이같이 반박했다.

그는 국보위 참여 계기와 관련해, "내가 우리 나라의 부가가치세 도입 때부터 참여해서 역할을 사람"이라며 "국보위에서 부가가치세를 폐지하려고 하니 협조해달라고 연

락이 와서, 실시된지 4년이 돼 어느정도 정착단계에 있는 부가가치세를 폐지하면 우리 세대에 큰 혼란이 올 것이란 생각이 들어 이것만큼은 막아야겠다는 생각에서 국보위 요청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의 이날 발언과 관련해 지역 정치권 등 지역 내 반발도 이어지고 있다. 광주선 의원은 24일 성명을 통해 김 위원장의 이같은 발언은 "광주정신 모독"이라고 발끈하고 나섰다. 박 의원은 "후회한 적이 없다는 김 위원장의 발언은 국민과 야당 지지자들에게 깊은 상처를 주고, 광주정신을 전면 부정하는 행위"라며 "그의 역사관과 현실인식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

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위원장이 사과 대신 자신의 국보위 참여를 정당화한 이상은 문제가 더 이상 묵과하고 넘어갈 수 없다"면서 더민주의 공식입장을 요구했다.

5·18 민주유공자이기도 한 최경환 광주북구를 예비후보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김 위원장의 발언과 관련해, "제1야당의 전권을 쥔 사람으로서 할 말인가"라며 광주 시민들의 착잡한 심정을 밝혔다. 그는 "광주시민과 학생, 김대중 대통령을 비롯한 많은 재야인사들을 짓밟고 만들어진 국보위는 전두환 신군부의 하수인으로 이 모든 악행의 틀러리를 썼다"면서 "궁색한 변명을 일삼는 김 위원장은 광주시민들과 역사에 사죄하고 용서를 빌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최현배기자 cki@kwangju.co.kr

국민의당 원내대표 주승용, 정책위장 장병완

윤여준 참여 '투톱' 가동...곽선우 前성남 FC 대표 영입

안철수 의원이 창당을 주도하는 국민의당(가칭) 창당준비위원회가 지난 22일 윤여준 공동위원장의 합류와 주승용 원내대표, 장병완 정책위의장 선출 등을 계기로 진영을 정비했다. 또 24일엔 외부 인사 영입을 계속했다.

지난 22일 마포 창당준비위원회 사무실에서 열린 국민의당 기획조정회의에는 윤 공동위원장과 주 원내대표가 처음으로 회의에 참석했다. 특히 지난 8일 창준위 공동위원장으로 임명된 윤 위원장

은 그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었기 때문에 국민의당 공식 일정 참석은 이번이 처음이다. 창준위의 투톱체제가 정상 가동된 것은 창준위 출범 후 2주 만이다. 주 원내대표도 "국민의당 초대 원내대표로서 책임이 무겁다. 제3당의 원내대표로서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복원하는 역할을 담당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주 신인 원내대표는 한 위원장과 협의를 거쳐 정책위원장에 장병완 의원을 선임하는 등 원내 지도부 구성과 원내 전략



주승용 원내대표와 장병완 정책위의장. 주승용 원내대표는 24일엔 곽선우 전 성남 FC 대표를 영입했다고 밝혔다. 경기 안양 출신의 곽 전 대표는 스포츠 전문 변호사 출신으로, 프로축구 및 프로야구 선수에 이진트로 활동하고 있다. 곽 전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석현 국회의장의 지역구인 경기 안양 동안구 출마를 선언했다. /박지경기자 jkpark@

밝은광주안과 의원

ICL(안내렌즈삽입술)

ICL이란?
ICL(Implantable Contact Lens-안내삽입콘택트렌즈)수술이란 고도근시 및 원시의 시력교정을 위해 개발된 시력교정수술로 각막은 그대로 보전한 채 특수 고안된 렌즈를 수정체 앞에 삽입하여 시력을 교정하는 방법입니다.

각막두께가 얇거나 심한 안구건조증 또는 각막질환으로 인해 라식, 라섹이 어려운 경우 ICL수술로 시력을 교정 할 수 있습니다.

렌즈삽입술은 고도의 기술을 요구하는 수술이기 때문에 최신 설비를 갖춘 전문 병원에서 충분한 노하우를 가진 의사에게 시술을 받아야 안전 합니다.

1566-9988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맞은편 눈모양빌딩을 찾으세요

진료내과: 스미일 / 라식 / 라섹 / ICL / 백내장 / 녹내장 / 망막 / 눈성형 / 노안

밝은광주안과

시엘병원 보건복지부 지정 배아생성의료기관

의료광고심의필 제150204-중-68156호

새생명탄생

시엘병원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체외수정기술 | 산부인과 복강경수술 | 습관성 유산 · 종합건강검진센터

www.clwhivf.com | www.시엘병원.com ☎(062)368-1700